

“은퇴 후에도 벌어야죠” 60대 취업자 3만명 증가

8월 광주·전남 전체 2만4000명 증가...광주 3개월째 늘어

광주·전남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했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 '8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광주 75만4000명·전남 10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0.4% (3000명), 2.1% (2만1000명) 증가했다.

전국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80만7300명 (2.9%) 증가했으며, 경남(-1만2800명)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취업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광주 취업자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 추

세다. 지난달 광주 증가폭은 3000명으로, 전월 (200명 ↑)보다 크게 늘었다.

전남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9800명 ↑) 이후 1년 5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전남 증가 폭(2만1000명)도 전월(1만8800명)보다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40대(-8600명)와 50대(-2100명)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취업자가 증가했다.

전남은 30대(-2900명)와 40대(-27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두 지역 모두 60세 이상(광주 1만1100명·전남 1만8100명 ↑)이었다.

산업별 고용동향을 보면 건설업 부진이 지속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광주에서 9700명, 전남에서 1만2800명 감소했다. 이외 광주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1만18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6600명) 취업자가 줄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1만1500명 ↑)과 제조업(1만800명), 농림어업(4000명) 등은 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가 1700명 감소하

며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9500명이나 늘었지만, 광주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6900명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 감소폭(-3500명)을 크게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8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수출증가세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4시간 인터넷 세법상담 국세청, 접수 후 1~3일내 답변

국세청은 19일부터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4시간 상담을 통해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 사항을 해결하고, 일과 중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상담하기'를 통해 질문을 올리면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풍수해보험이 뭐죠?’ 광주 소상공인 가입 줄어

13.6%로 전년비 4.9%p 감소...손보사 “수익률 낮다” 적극 가입 독려 안해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보상을 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광주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광주 13.6%·전남 13.7%로, 전년보다 각각 4.9%포인트 감소하고 8.0%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가입률은 7.1%로, 지난해(4.7%)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가입률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4.9%포인트)와 충북(-14.6%포인트), 경북(-0.1%포인트) 등 3곳이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역시 광주는 감소하고

전남은 늘었다.

광주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43건(2020년)→788건(2021년)→582건(2022년 7월) 등으로 지난해 말보다 206건(-26.1%) 감소했다.

전남 가입 건수는 892건(2020년)→1453건(2021년)→3515건(2022년 7월) 등으로 1년 새 2062건(141.9%) 늘었다.

전국 가입 건수는 지난해 2만8655건에서 올해 7월 4만3441건으로, 1만4786건(51.6%) 증가했다.

한편 지자체가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손보회사들이 풍수해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태풍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가입 독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나마 홈페이지 내 코너 제작에 그치고 관심을 위한 안내도 부실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과 지난해, 올해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한 풍수해보험 홍보를 진행했으나 DB손해보험은 2019년만 홍보물품을 제작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4년간 풍수해보험의 가입 독려 촉진을 위한 이벤트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물론이고 정책보험을 관장하는 보험사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전향적인 태도로 보험 가입을 독려해 풍수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인적자원개발위, 4년 연속 ‘성과 우수기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지역인적자원의 날' 행사에서 2021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전국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광주인적자원은 2021년 성과평가에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으면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우수인적자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인적자원은 이날 우수 지역인적자원으로 선정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인 기관 표창과 각 부문별 포상에서 '수급조사·분석'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문성연 책임연구원이 '기업훈련지원

사업 부문'에서 사무국 우수 전담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17개 인적자원의 위원회 운영, 수급조사 분석, 인력양성 사업 성과, 네트워킹, 조직관리 등의 인력양성사업과 기업훈련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2021년도 성과를 분석해 평가했다. 광주인적자원은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만 광주인적자원공동위원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광주인적자원위원회와 수행사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新光은명장’과 함께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2022新光은명장 ‘후반기 스페셜 명장’ 직원 12명을 동구 대인동 본점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영업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 스페셜 명장은 13개 부문에 대한 두 달간 실적을 반영해 총 76명을 선정했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 이후 ‘초보 개미’ 대거 유입 수익률 하락

대출 심사 강화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개인의 수익률이 되레 낮아졌으며, 이런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선 주식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객원회 연구위원은 18일 '코로나

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익률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별 주식거래 실적 등을 이용해 598개 종목의 개인 매매의 수익률을 분석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2017년 1월~2019년 12월과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1월~2021년 8월을 나눠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강했던 주로부터 20일 후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순매도세가 강했던 주로부터는 20일 후까지 하락했다.

개인이 주식을 사면 일정 기간은 올랐고, 팔면 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의 매수세가 강한 주로부터 20일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 이미 주가가 상승한 후에 매수세가 강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강한 주로부터 20일 이후 일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도 여전히 관찰됐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줌으로써 프리미엄으로 초과 수익을 올렸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개인의 매매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19년 64.8%에서 2021년 73.0%로 상승했다. 또 총 거래대금을 봐도 같은 기간 2964조원에서 988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가치 평가보다는 추세에 따라 군집행동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줄고, 손실을 보는 경향이 확대되며 가계 재무 건전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곽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원에서 신용용자와 신용대주 등 증권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의 경우 증권사 자체적인 기준으로 신용매매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증권사 등은 투자 관련 온라인 기초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수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화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 학교 근처 전봇대 안 줄어드네

전선 지중화율 6.0% 그쳐...전국의 1/3 수준

전남지역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학교 인근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평균 전선 지중화율은 20.5%로 집계됐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1%)이었고 대전(57.2%), 인천(44.1%), 세종(43.6%), 부산(43.1%), 광주(36.5%), 대구(34.9%), 경기(30.4%), 울산(28%) 등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지중화율 이하를 기록한 지역은 제주(20.5%), 전북(12.5%), 경남(12.5%), 충남(11.7%), 충북(11.3%), 강원(10.2%) 등 8개도(道)였다.

전남 전선 지중화율은 8.9%로, 경북(7.4%)과 함께 최하위에 들었다.

전남지역의 학교 인근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전

국 평균과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전남지역 초·중·고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6.0%로, 전국 평균(19.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학교 인근 지중화율은 세종이 66.6%로 가장 높았고 경기(42.7%), 대전(40.5%), 인천(33.8%), 광주(31.8%), 서울(28.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선 지중화 사업 승인 '0건'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와 대구, 세종 등 3곳뿐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5%로 일본 5.7%, 미국 18.1%보다는 높고 영국 62.5%, 프랑스 40.1%보다는 낮은 편"이라며 "현재 그린뉴딜 지중화 지중화 사업 선정 평가방식에서 지역적 불균형 부분과 자연재해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용허가제 확대 외국인력 1만명 오늘부터 접수

고용부 내달 29일까지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확대 1만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이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학 쿼터를 기존 5만 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심해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500곳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배정되는 외국인력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3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1	15	20	35	44	1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13,414,943				13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2,477,625				79	
3	5개 숫자일치	1,344,708				3,083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505	
5	3개 숫자일치	5,000				2,376,004	